

[토론회]

새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1. 자료집

-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7시 ~ 9시 10분
- 장소 : 평화다방
- ※ 이 자료집은 토론회 후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들어가는 말 (사회) 정병오 공동대표

'갈등의 축인 교회가 무슨 국민 통합을 말하는가' 라고 일반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선 이후 '통합'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기윤실에서 이 주제를 잡아 갈등의 원인과 통합을 위한 대책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후 2~3차례 더 다양한 영역과 관점의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며, 오늘은 원로 석학 손봉호 교수와 기독교인문지성 생태계 디렉터, 청어람의 양희송 대표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발제 1.

한국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

손봉호 자문위원장 (기윤실, 고신대 석좌교수)

최근 대선 후보들이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 사회구성원들이 동감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갈등해소와 통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원인 중 하나는 도산 안창호의 말대로, 분열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힘을 잃고 퍼져버렸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분열의 이유는 첫째, 도덕성 결여로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의 분석에 동의한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면, 힘을

합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도덕성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세계 176개 국가 중 52위이다.(2016년 발표, 일본은 20위) 도덕적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탈세율 28% (경제위기 봉착했던 그리스 27%), 보험사기 14% (일본1%), 교통 사고 입원을 일본의 8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서로 믿지 못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을 말할 수 있을까. 도산은 '거짓말은 군부의 원수'라고 했다. 도산이 애달파했던 상황은 2017년 현재도 여전하다. 기윤실이 창립 초기부터 여러 가지 정직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무엇이 나아졌다 싶다.

분열의 둘째 이유는, 이념적 갈등이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나쳤다고 본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서(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어떤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 합리적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었는데, 지금 시대는 SNS가 발달하면서 온갖 괴상한 생각에도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쉽게 퍼뜨릴 수 있게 되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의견만 찾아다니고 수용하여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그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기에 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도덕적 불신을 극복해야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도록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적 정의'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이념을 종교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념을 종교적 상황까지 끌어올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이념은 비과학적이기에 객관적일 수 없다. 이념을 절대화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성경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다. 한국사 회는 이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념을 성경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극복해야한다. 유일하게 절대적인 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윤리이다. 보수도, 진보도 상대적이다.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한다.

이 두 가지만 극복해도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 2.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기독교민과 한국교회의 역할

양희송 대표 (청어람ARMC)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사회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 2015년의 종교인구 센서스 결과는 뜻밖에 개신교가 10년 사이에 한국 사회 1위 종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규모에 걸 맞는 신뢰성과 책임성을 인정받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 괴리현상이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고민거리이며, 한국 사회 역시 개신교의 공을 박하게 평가하는 이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2014.04.16)

이제 3년차를 맞는 이 참사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사태 수습에 있어 무능력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었다. 정부나 언론의 문제도 컸지만, 한국교회의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일차적으로 고난주간 수요일에 벌어진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다. 안산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도 목회적으로 충분히 감싸안지 못했고, 교계 지도층들이 종종 던진 발언들도 적절치 못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와 공감과 위로의 언어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용된다는 우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우선적 자세는 목회적 접근이고 공감적 태도였을 텐데, 지금도 교회 내에서 '세월호'는 금기어로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마치 '5.18 광주'를 담아낼 적절한 언어와 태도를 형성하지 못한 지난 시절과 유사하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가 통과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사건들 사이에서 정치적 우려를 앞세우기 전에 어떤 태도를 내보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대통령 탄핵 (2017.03.10)

2016년 가을부터 거세게 몰아닥친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적 분노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촛불시위가 벌어지도록 촉발했다. 국민 여론이 80-95%선까지 탄핵찬성이었으니 시중의 공감대는 충분히 모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수개월간 폭력시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렀고,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측도 거리시위에 나서기 시작하였는데, 주요한 동원의 축으로 일부

대형교회들이 등장했다. 한국 보수 세력의 주요한 축으로 개신교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입증한 셈이다.

개신교의 정치참여는 해방 이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종종 장로대통령을 배출하려는 열망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반공주의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고비마다 개신교가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활용된 것이 여러 번이고, 부정선거나 불법선거에 연루되기도 했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진보적 교회들이 민주화운동 등에 투신하고, 반정부 투쟁에 나선 역사도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역사는 제대로 검토되거나 숙고되지 않은 채 에피소드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특히나 이번 국정농단의 원인제공자로 꼽힐 최태민은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신교계를 기반으로 정치적 동원에 나선 전형적인 인물이다. 한국교회의 반성과 다짐이 없으면 안 될 대목이다. 기독교민과 한국교회가 정치 참여의 차원과 이슈를 정돈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지향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의 규칙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만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기독교민 운동과 한국 교회

나는 교회 그 자체가 사회문제나 정치적 사안의 최전방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본다. 교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소신이 크게 다를 수 있고, 이를 모아내는 작업은 매우 서툴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훨씬 원칙의 차원을 다루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신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여론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는 역할은 기독교민운동 영역이 나서주는 것이 전문성의 문제나 지속성의 차원에서 더 나은 방법일 것으로 본다.

문제는 우리에게 충분한 숫자나 규모의 기독교민운동이 존재하는가, 교회와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래로 해외선교에 소문나게 열심을 보였다. 이제는 사회선교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사회의 각 영역으로 사회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는 네트워크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교회가 성급하게 나서면서, 목회자들의 사고와 경험치 안으로 사안이 축소되거나, 내부의 공감도 세심하게 얻어내지 못한 채 목회자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갈등과 이견을 다루는 내부의 경험도 없이 사회 내의 분열을 봉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만용이다.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내부 정비를 해가면서 걷는 것이 필요한 시절이다. 성찰과 혁신을 키워드로 기독교민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 보기를 요청한다.

<참고자료>

강성호, <한국교회 흑역사> (짓다, 2016);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 (느티나무책방, 2017).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IVP, 201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IVP, 2007).
미로슬라브 볼프, <광장에 선 기독교(Public Faith)> (IVP, 2014).

종합토론/질의응답

<청중 질문>

1. 교회에서 진보든 보수든 이념적 선택을 할 때, 특정 진영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교회가 어떤 진영(이념)과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핵심적 팩트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2. 대선 후보 다섯 사람이 모였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이나 비전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들추는 난장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웠다. '이건 아닌데' 싶은, 대다수가 틀렸다고 보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필요한가?
3. 교회가 기본적으로 정치 관련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태극기집회/촛불집회/탄핵 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인가? 헌법이념수호/공정의 문제가 아닌가?
4. 토론회 제목에 '국민통합'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먼저 정해야 이후 대책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합해야할 영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통합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다.
5. 한국교회에도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를 교회가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한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는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원로목사는 태극기집회를 지지한다. 세대 간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6. 한국 교회가 국민통합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은 대화와 화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가진 배타성, 설교자의 강력한 권위 등으로 대화와 통합이 어려운 것 같다. 교회는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대형교회 목사들의 태극기집회 참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8. 찬송가를 크게 틀고 교회 가운을 입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목회자/성도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한 기독교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까? 그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 교회 내에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왜 어렵게 되었을까? 목사님의 입장에 순종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까?
10. 결국 교회의 역할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한 개인이 정직하게 사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11.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의 목적이긴 하지만,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당이 있을 수 있는가?

<패널 답변> 손봉호 교수

- 왜 교회에서 정치이야기를 못하는가?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가 우상이 되었던 반증이다. 한국에서는 보수/진보가 절대적이 되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 어떤 통합을 말해야하는가 할 때, 적어도 저 사람이 나와 달라도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이 기본자

세라고 생각한다.

- 성도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잘못을 고쳐야한다. 목사나 당회가 잘못 결정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먼저 오해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하며 풀고 고쳐가야한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를 향해서도 촛불을 드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왜 못하겠는가.
- 거짓말의 문제, 칸트는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어떤 철학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드는 말이 거짓말이다.
- 교회가 공식적으로 촛불이든 태극기든 지지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개인적으로 의사표시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탄핵 심판을 위한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기독교 대통령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잡는 존재가 아닌 핍박받는 존재로 남아야한다.
- 정직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욕심과 분노의 절제. 독일 신학자 그룬드만은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 했다. 우리의 절제와 정직은 이웃을 위해서여야 한다.
- 정권/정치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또한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 정당이 권력을 잡은 정당을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인을 '손해 보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좋겠다.

<패널 답변> 양희승 대표

-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줄 몰랐다. 기윤실이 내건 토론회 주제와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맺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안에 대한 고민을 먼저 깊게 하고, 적용을 위해 철학/정치학을 끌어와야 한다.
- '정치적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의 독해력이 낮다. 들을 기회가 없고, 듣는다 해도 교회 내에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수준의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현상을 풀이하기에 교회의 수준, 교회의 언어는 턱없이 뒤쳐져있다.
-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급화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주일 학교/청년부를 통해 일반사회보다 이른 나이에 고급화된 사회적/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회장선거, 의사발언, 회계보고 등등. 지금은 일반사회보다 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를 향해 어떤 해석/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는 담당 목사가 간사(스텝)들과만 공동체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이 논의하고 대화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패널 답변> 정병오 공동대표

-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며, 교회 내 사회적 인식과 풀이의 미숙함을 보았다. 교회가 사회현상과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 교회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좋게 좋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정해서 끌어야한다는 것이다.
- 정치, 좁게 보면 선거 관련 행위지만, 넓게 보면 이해다툼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소상공인) 자신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해다툼에 놓였을 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쪽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판단해보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 진영을 함께 불러 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갈등은, 듣지 않는다는 불신, 실제로 듣지 않는 태도 때문이다. 논쟁을 치고받는 토론도 좋지만, 서로 듣게 하는 장도 필요하다.

□ 청중 제안

- 30대 청년 직장인 :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토론이 있어야한다. 처음엔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대화 하다보면 일방적 상담/가르침이 된다. 동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
- 60대 사회/경제학자 : 개인적 정치함양도 중요하지만, 정직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기윤실 임원들부터 같은 전문가집단에게 욕을 먹더라도,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며 본을 보이고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 50대 목사 : 때. 오는 것인가, 만드는 것인가? 기성세대가 '지금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대 대학생 : 현 시점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음세대(청년)들을 위해 준비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선배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만들면 좋겠다.

□ 마무리발언

- 양희송 대표

'가능한가?' 싶었던 것들이 요즘은 가능하더라. 사람을 조직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다. 문제는 교회의 울타리(구조/자원/어른)를 넘어서는 것인데, 심정적으로 어렵지만 마구마구 시도해보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향후 10년간 100개 정도의 기독교시민으로 만들어진 액션그룹이 등장해야한다. 어느 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만들어진 사례처럼 그 어떤 모임이라도 좋다.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에 맞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100을 상상하면 10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1이 살아남는다. 그러니 왕성하게 만들어내라. 사고쳐도 괜찮아. 기독교시민들의 장이 더 열려야한다.

- 손봉호 교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좀 반항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대학부 회장일 때 4.19 데모에 나갔다고 담임목사님께 혼나기도 했다. 요새 청년/대학생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물론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민주적이었던 교회가 오히려 더 권위적이 되었고, 청년들은 도구가 되었다.

감성적인 단순한 복음성가보다도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들여라.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 방향을 찾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양희송 대표의 말처럼 그룹을

만들어라. 책상에서 책만 읽지 말라. 학자는 될지 몰라도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행동하라. 부대껴야 배울 수 있다.

세대 간의 대화를 위해서 청년세대가 먼저 다가가고 도전하라. 사실 젊은이들도 윗세대 이야기 잘 듣지 않는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노력해야한다.

권력밖에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문제이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장하면 그 때가 오리라 믿는다. 공익과 약자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 기신